클라우드에 대한 고찰

조예진

사실은 클라우드에 대해 관심을 그다지 많이 갖고 있지 않았다. 여러 기능들을 모아두어 접속이 간편하다는 점 외의 장점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.

클라우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된 건 2학년 무렵이였다. 동아리 활동에서 저장소 설정과 공유의 문제로 인해 빔 프로젝트로 다 같이 하나의 노트북을 보면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던 와중, 파일이 예기치 못하게 삭제되었다. 우왕좌왕하던 도중, 웹 드라이브에 올라가 있던 파일로 가까스로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. 이후로 클라우드에 대해 흥미가 생겨서 다음 년도에 클라우드 컴퓨팅 전문반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었다.

클라우드 구현에 앞서 클라우드의 특성에 대해 공부했다. 사용자의 니즈에 맞게 서비스를 확장하고 공개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유연성, 기본 인프라를 구축할 때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효율성,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원한다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편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.

시중에 나와있는 완벽한 클라우드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사진 파일을 다룰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작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. 자바스크립트로